

간호사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 등 건의

간협, 대선기간 중 간호현안 적극 알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의사당 로터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데 따른 보궐선거로 5월 9일 치러졌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3800표(41.1%)를 받아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확정을 의결한 후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취임행사는 취임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취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고,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고,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낮은 자세로 일하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간협,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성명
간호 관련 공약 착실히 이행되길 기대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이며,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일 자리를 챙기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깨끗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

까운 곳에 있겠다"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되는 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저는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성명을 5월 12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전국 38만 간호사와 함께 축하드리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약속하셨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양극화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 등의 공약들이 착실히 이행돼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 의료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에 보장을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준 높은 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지역사회 간호전담체계를 확립하고, 방문간호관 및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단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국민 모두가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함께 환자안전에 보장하고 국민건강이 실현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정규숙·최수정 기자

한국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8.9세

아프지 않고 건강한 장수국가 만들어야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1세, 건강수명은 73.2세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가 8.9세로 나타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하는 '위클리 이슈' 2017년 제15호에 게재된 '기대수명 90.8세의 정책적 함의와 대응방향'을 통해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원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1세이며, 건강수명은 73.2세로 격차가 8.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85.2세)과 건강수명(75.3세)의 격차는 9.9세, 남성의 기대수명(79.0세)과 건강수명(70.8세)의 격차는 8.2세로 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건강문제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평균수명과 같은 개념이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그만큼의 생존기간 중 건강하지 못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6년 WHO에서 발표한 국가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3세로 OECD 국가 중 9위, 건강수명은 73.2세로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인구 중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32.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Lancet)에 실린 연구결과에 의하면, 2030년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세로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에는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 모두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기대수명이 90세를 넘는 집단은 우리나라 여성이 유일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유미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국가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제공, 사전예방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문재인 대통령 정책공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방문보건사업 확대

간호사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주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환자안전에 강화하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힘쓰겠다."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간호사 등 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책공약은 '4대 비전'과 '12대 약속'으로 구성됐으며, 간호사 및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안전에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간병원 확대 지원,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및 재취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또한 찾아가는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간호사 등 방문간호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사회 치

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간호사 등 인력 확충 등을 공약했다.

의원-병원 간 환자 의료·회송체계 강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활성화,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에 힘쓰기로 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여성(젠더)건강 기본계획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Nurselife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www.Nurselife.or.kr
1566-3137

2017년 연중 지급 혜택

- 2017년 하반기부터 20,000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 등록회원 RNshop 총 구매액의 1% 적립포인트 지급

4월 지급 혜택

- [4.29] RNcard day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무료관람 : 557명, 5,013,000원 상당 제공

5월 지급 혜택

- [5.4~5.10]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 주연배우 무대인사 및 무료관람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안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